

송대 극회 제25회 신입생 환영공연



노래가요의 춤이 춤이

원작 / F. 뒤렌마트

기획 / 강예정

연출 / 서정우

일시 / 2002년 5월 30일, 31일 7시 / 6월 1일 2시, 6시

장소 / 송실대학교 대학극장 (제1공학관 3층)

주최 / 송실대학교 송대 극회

후원 / **남부행정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 노형진 전출력 겸 전문상담사 (02)815-7819·7839

수험생과의 소중한 만남!! 합격으로 안내합니다.

전국 최고 단과 안내		
그 명성 그대로 합격의 지름길은 남부에 있습니다.		
국어	전용대교수	수·목 7급18:40~22:10
국어	국·봉교수	수·목·금 14:00~17:40
국어지문특강	국·봉교수	금 14:00~17:40
국어지문특강	전용대교수	화 19:00~22:20
한국사	이재덕교수	수·목 14:00~18:00
한국사	김윤수교수	월·화 13:30~17:10 (이론+문제)
영어	신홍섭교수	수험영어 월·화 18:50~22:10
영어	신홍섭교수	스파르타 수·목 14:00~17:40
영어	임장빈교수	월·화 14:00~17:40
영어	임장빈교수	수·목 19:00~22:00
영어	김영수교수	월·화 14:00~17:40
영어독해	임장빈교수	금 19:00~22:00
영어독해	김영수교수	목 19:00~22:00
언법	손유은교수	수·목 18:50~22:10
언법	제한태교수	월·화 18:40~22:00
기조영정법	김윤조교수	금 11:00~18:00
영정법	김윤조교수	금·토 18:50~22:10
영정법	박만규교수	월·화 18:50~22:10
영정악	김동현교수	월·화 18:50~22:10
영정악	김 일교수	수·목 18:50~22:10
경제악	박지훈교수	금 18:40~22:00 토14:00~17:00
관세법	오철환관세사	토 19:00~22:00 일14:00~17:00
세법	김일관교수	월·화 14:00~18:00
교정악	장세석교수	일 14:00~18:00
부기	이윤호교수	월·화19:00~22:00
외계악	이윤호교수	토 19:00~22:00 일 14:00~17:00
외계원리	이윤호교수	토 14:00~17:40 일 09:00~13:00
영법	조승환교수	수·목 19:00~22:00
영소법	조승환교수	토 14:00~18:00
사외복지악	신재명교수	화 14:00~22:00
국제법	도시환교수	토 14:00~18:00
교육학	신태석교수	토 19:00~22:00 일 14:00~17:00
재정학	박지훈교수	수·목 19:00~22:00

7·9급 공무원

- ◆ 이론반, 문제반 매월 개강!
- ◆ 종합반, 단과반 동시수강시 단과반 수강료 30% 할인
- ◆ 전용 자습실 600석 무료개방(06:00~23:00)
- ◆ 매월 7·9급 장학생선발 모의고사 실시

법원·검찰

2002년 법원·등기서기보 합격을 축하합니다.
 <총 155명-법원직 130명, 등기직 25명>

여름방학 특강반

<2개월반·3개월반>

● 방학맞이 교재 30%할인 대이벤트 ●

경찰·경찰간부

일반순경·여경·101경비

- ◆ 경찰단독반, 경찰전용자습실 운영
- ◆ 매월 장학생 선발 모의고사 실시

경찰간부 최종합격자 신영민 외 5명 합격

감정평가사

<http://nambuapp.com>

● 감정 합격 프로그램 ●

- ▶ 매주요약정리모의고사 시행
- ▶ 연중테마특강 및 마무리특강
- ▶ 1차 스터디 운영
- ▶ 에듀스파 동영상 강의(eduspa.com)

모시는 글

무대 위에서...

수없이 박은 못, 수많은 톱질, 수없이 흘린 땀.
 수없이 맴돌았던 우렁찬 목소리, 펼쳐진 많은 이야기들...
 몇 십년 동안 모든 극회인의 열정을 쏟아낸 장소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이 담긴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번 공연은 그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없어질 극장을 눈앞에 두고 많은 아쉬움과 슬픔이 교차됩니다.
 하지만 모든 극회인들의 열정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극회여! 영원 하라!
 모든 극회인들! 사랑합니다!



극회장, 기획
강혜정 (독문 00)

기획의 변

25번째 신입생 환영 공연이 올라간다.
 송대 극회라는 이름아래.. 하나의 작품이 새겨진다.
 많은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연출의 변



연출
서정우 (컴공 96)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모두 다 다르다. 저마다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걸 슬기롭게 잘 극복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서로 불신하며,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감정이 골은 깊어지게 된다. 무관심, 그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나태함, 단조로움... 이것들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얼음 위를 걷듯이 위태롭고, 치열하게 시간에 쫓기고 있다. 대학 극장 문제, 대학 공연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진로 문제, 졸업...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은 언제나 무섭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제일로 하고 싶은 단 한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후회도 미련도 없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보지 않는다. 달리자! 그냥 앞만 보고서...

작가연구

F. 뒤렌마트(Friedrich Durrenmatt)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그의 작품의 특징은 자아만족, 이데올로기, 기성관념의 회의 또는 부정, 불가능, 반대로부터 출발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불합리한 현실, 부패와 황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는 혼란스러운 세계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실체는 찾을 수 없다. 즉 현대 문명에서 얻어진 이기와 물질들 만으로 세계의 혼돈은 극복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은 불합리한 극단으로 치닫게 되지만 인간 개인은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작품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그의 작품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계, 공동체의 위기를 구제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노력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노부인의 방문」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구해야겠다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않고 사건을 단지 희화적으로 다루면

남부행정고시학원

<http://nambuugosi.com> / 노량진 전철역 옆 전문상담 ☎ (02)815-7819 · 7839

서 현대인의 비극적인 상황을 희극적인 요소로 담아낸 독특한 형태의 희극이다. 《로물루스 대제》(1952) 《미시시피씨의 결혼》(1952) 《천사 바빌론에 오다》(1953) 《노부인의 방문 Der Besuch der alten Dame》(1956) 《물리학자들 Die Physiker》(1962)

작품연구

이 작품의 부제는 비극적인 희극(eine Tragische Komodie)이다.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아주 비극적이고 가혹한 상황(현실)을 희화적이고 우의적으로 보여준다. 작품 곳곳에 우스꽝스러운 착상, 저속하고 익살적인 요소, 말장난, 재치를 가지면서 날카로운 비평과 사회 풍자를 많이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전체 3막으로 이루어져있고 시대적 배경은 2차대전후의 독일 소도시 쾰렌이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소도시 쾰렌에 45년 전, 이 도시를 떠났던 클레어 짜하나시안이 억만장자 귀부인이 되어 고향을 방문함으로써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작품은 사건(event)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극중 여주인공 짜하나시안으로부터 사건은 던져지지만, 극의 사건을 담당하고, 전개시키는 것은 남자주인공 일(III)을 포함한 쾰렌시민들이다. 짜하나시안은 파산한 소도시에 10억을 제고하는 대가로 청춘시절 자신의 옛 애인이었던 알프렛 일(III)을 시민들에 의해 살해해주기를 요구한다. 이것으로 사건은 시작되며, 자연스럽게 극의 주인공이 일(III)로 바뀌면서 2막의 전개는 사건을 풀어나가는 시민들과 일과의 팽팽한 대립 구도가 중점이 된다. 시민들과 일의 첨예한 대립 구조가 3막에서 절정에 달하고, 시민들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인도주의, 인간성이라는 정의의 개념이 극이 전개 됨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어 가는 지가 극의 초점으로 맞추어진다.

등장 인물들에 따른 정의의 문제

이 작품을 정의의 문제가 주의제라고 볼 때 작가에 의해 제시된 이 극의 주된 정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不正이다. 정의를 이루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란 없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을 나눈다면 짜하나시안, 일(III), 그리고 쾰렌 시민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클레어 짜하나시안(Claire Zachanassian)의 이름은 그리스 혈통의 무기상, 짜하로프(Basil Zachroff), 해운왕 오나시스(Aristoteles Onassis), 아르메니아 혈통의 영국 석유 귀족인 굴벤키안(Calouste Gulbenkian),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합성함으로써 이뤄진 점이 흥미롭다. 또 이들은 모두 전쟁 중 도덕성이 결여된 사업적 유능함을 바탕으로 재벌이 되었다는 점이 짜하나시안과 비슷하게 어울리는 면이 있다. 그녀는 극 중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 된다.

(오른쪽에서 클레어 짜하나시안 등장. 63세. 붉은 머리, 진주 목걸이, 큼직한 금팔찌, 괴상한 차림이고 어설피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로테스크해도 희귀한 우아함을 보여주는 사교계의 귀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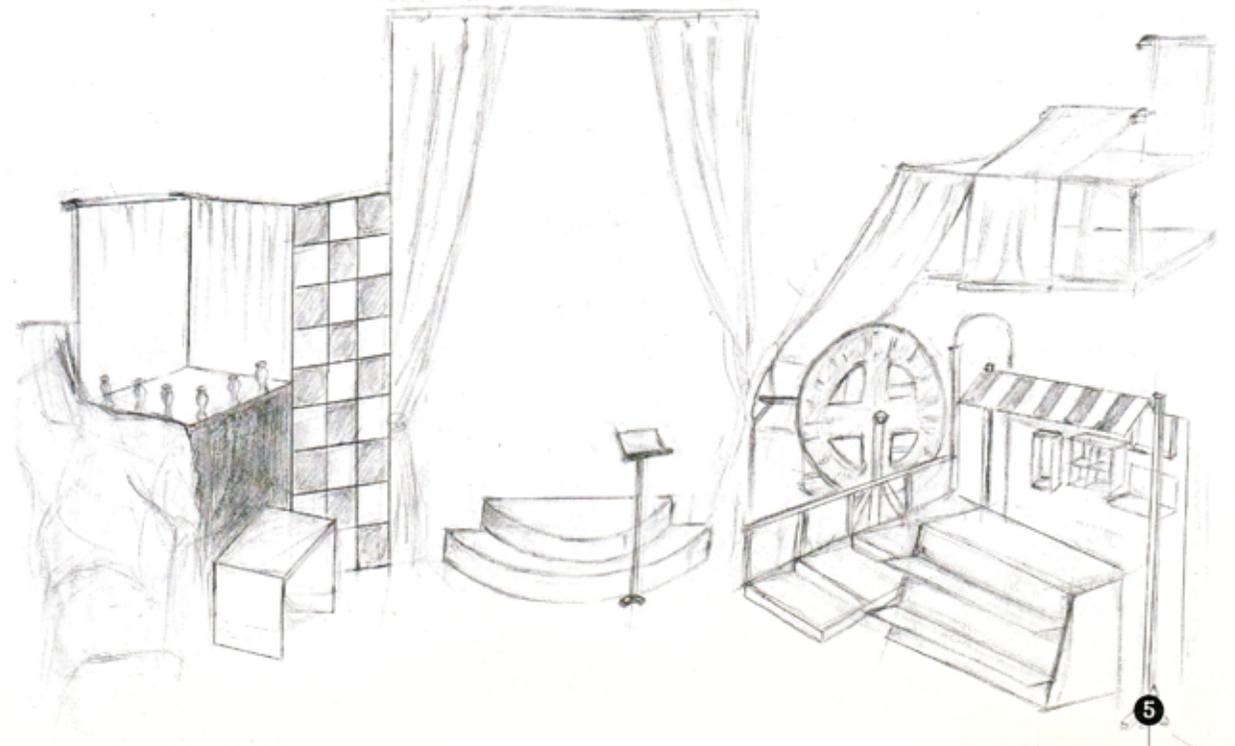
일 : 클라라! 도대체 당신의 몸은 모조리 의족이고 의수란 말이요?
클레어 : [.]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기체가 산산조각이 난 속에서 혼자만이 기어 나왔어요. 승무원들도 다 죽었지만, 나만은 죽이질 못했었지요.

짜하나시안의 모습(외양)과 캐릭터는 기괴하고, 끔찍하며, 냉정하다. 이미 인간적인 단계를 넘어서서(밖에서) 있고, 도덕, 정의, 예절, 관습, 상식의 테두리에 있지 않으며, 절대적이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로 작품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돈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지배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의 의지까지도 돈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를 선, 악으로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제시한 돈의 유혹에 쾰렌 시민들은 점점 빛을 지게 된다.

그들(쾰렌 시민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작가의 생각에서 알 수 있고, 또 교사의 대사에서 빈곤은 너무나도 흑독하고 유혹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라는 말로, 쾰렌 시민들의 그저 막연히 곧 부유해 지고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하나시안의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의 정의문제는 바로 복수, 즉 일(III)의 죽음을 의미하며 마침내 일(III)은 시민대회에서 쾰렌시민들이 그를 에워싸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가 1막에서 짜하나시안의 제안과 2막에서 쾰렌시민들에 의해 서서히 조여 오는 죽음의 예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급기야 쾰렌을 탈출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조차 허사가 되자 마침내 3막에 이르러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죽음을 받아들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일(III)의 이러한 내면적 변화 과정로부터 한 인간의 죄의식과 죄를 인정하며 정의를 이루려는 용감한 인간상이 제시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III)의 죽음이 쾰렌시민들에게 올바른 이성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일깨워 주지는 못하며, 자신 이외에는 어떠한 비극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일(III)의 죽음에 대해 의미 있으면서도 무의미하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의제가 되는 정의의 문제는 등장인물에 따라 세가지로 나타나 있다. 사건의 발단을 제시한 짜하나시안의, 10억에 대한 대가(일(III)의 죽음)로부터 나타난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일(III)에 의해 제시된 이상화시킨 정의, 마지막으로 쾰렌 시민들에 의해 제시된 변화하는 목적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정의가 그것이다. 쾰렌시민들은 처음 짜하나시안의 제안을 인간성의 이름(휴머니즘)으로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인간성을 다시 살인 용호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왜곡된 정의를 보여준다.

무대공간에 대한 작가의 말

희곡적으로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된다. 즉, 어떻게 나는 소도시를 무대위로 불러들일 것인가?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노이엔부르크에서 베른으로 여행을 다녔다. 급행열차는 매 한 두 번 조그마한 역에 멈춰 서곤 했다. 이 작은 정거장 역사 옆에는 작은 변소가 있었다. 이처럼 이는 작은 역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상이고, 무대에 대한 상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가 거기에 도착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역이고, 관객은 역과 함께 쾰렌에 도착한 느낌을 받게 된다.



CAST



일
김영걸 (정통전 98)
비어버린 미소와
회색 마음



짜하나시안
강유미 (중기 00)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극장에
소중한 말말뚝을 박았다.



경찰, 남편
서정우 (컴공 96)
달리재
그냥 앞만 보고서...



집사, 집달리
윤장한 (경제 98)
졸립다--- 자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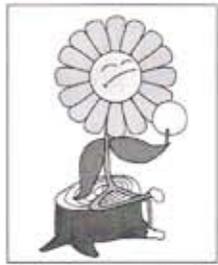
첫째시인, 코비, 아나운서
이미나 (국제 통상 01)
Who am I?



교사
최연경 (정통전98)
사라지는 모든 것들...
역시... 영원한 것은 없다!



신부, 일 아들
나윤호 (역사·철학 02)
밝은 빛을 얻기 위해
첫발을 딛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먼저!



둘째 시인, 일의 아내
김혜민 (경통 02)
이빠해 주세요~~♥
E-mail : k8840216@hanmail.net
MSN ID : k840216@hotmail.com



시장
김원태(경통 02)
지금 울리는 땀방울이
10년 후 나의 명함이다.

STAFF



무대 감독
박시현 (법학 94)



무대 미술
김명진 (정통전 96)



무대 미술
이세훈 (전기 97)



무대 장치
안병진 (전자 97)



무대 장치
오민석 (전자 97)



분장
백종혜 (국문 96)



일러스트
이경미 (산공 99)



의상
이상혁 (정통전 01)



진행
문인준 (정통전 02)

MAIN STAFF



음향
차상우 (기계 97)



조명
신익환 (정통전 02)

연습일지

❖ 5월 4일

- 푸하하!! 롤루랄라~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엠티날!!!
연천에 있는 영걸 오빠 고기집으로 고우~ 비록 후발대루 갔지만 밤에 먹는 고기 맛은 그야말로 일품~ 오리 고기를 못 먹어서 아쉽긴 했지만..쩍..밤 낚시도 실패했지만 잤다~ 새벽까지 진행 되었던 이중모션과 이른바 공포의 "킹 게임" !!! 스릴감 짱입니다!! 담에 또해엇-!!

❖ 5월 5일

- 오늘은 어린이날~글구 극회인의 엠티 THE END DAY~
아쉬운 마음에 모두들 필사적으로 놀았다, 등산도 하구 물놀이도 하구~ 사진도 찍구~드라이브도~ 점심에 먹었던 토종 순대국과 설렁탕~ 예술입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는 꽃마차를 타구 COME BACK HOME-!!!
모두 피곤을 감싸안구 전철에서 한줄로 쫓아서 죽은 듯이 잠으로 여행-
눈을 뜨니 사람들이 신기한듯 우릴 내려다 보구 있었다..예궁-쪽팔렸-
6월에 또 오라는 영걸이 오빠의 부모님 말씀~ 감사합니다~또 갈꺼여~
우리는 착한 어린이-!!!

❖ 5월 10일

- 세팅 첫 날..오늘은 대충 팀을 나누고 작업 계획~

❖ 5월 11일

- 세팅 이틀째..우왓~ 힘들다-!! 다들 점심에 먹은 고기의 힘으로 버티는 것 같다!!!
하~우리 극회의 대 간판 스타이신 석용 선배님께서 오셨네??? 싸인 받을까??히히~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역시 술은 피로 회복제-!!!!

❖ 5월 12일

- 세팅 삼일째..어제의 술기운으로 모두들 지각-!!! 죄송함파-!!
열심히 만든 나무 의자..영걸 오빠가 부숴어여...후울쩍...다시 만들어야쥐..
희진 언니와 주영 언니두 극회인의 힘을 보여주셨지요~
대략적인 세팅 끝----- 선배님들..후배님들..수고하셨습니다-!!!!!!!!!!!!

❖ 5월 18일

-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세팅 뒷마무리 끝!!!
하~명호 선배님과 성환선배님 WITH LOVER..글구 민주 선배님..우왓-방가워여-!!!
선배님들께서 사주신 맛있는 저녁- 많이 먹구 힘 낼꺼여-앗사-!!

❖ 5월 20일

- 흐흐흐..오늘은 성년의 날..성인식을 맞이한 나와 상혁이..
선배님들-글구 후배님들-!! 넘넘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거여-
글구 더욱 더 멋있어진 형진 선배님-넘 반가웠구여-감사합니다-
나두 이젠 성인이다-~앗사-~그치만..흑흑..성인은 술을 혼자 따라 마셔야 하나요??
밤도 안 사주시나요??..구럼 나 성인 안할래여...흐미-

❖ 5월 21일

- 공연이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다..우쉬-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기운도 없다..안돼 안돼-!!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멋진 공연 올리자구여~
아자-~~~~~!!!! 극회인 ㅇ ㅅ ㅈ * ㅅ * ㅇ * ㅅ * ㅇ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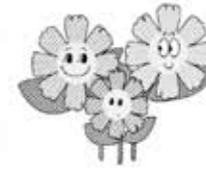
정기공연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흥소인극"잠세영문나물계몽의말로" "대백국 노예의 힘"		
	1923년 7/7,21	전원극"우리의행진""기계인간""동백꽃" "삼년후"염영철년회주관		
	192년 7/28,29	"소인연극"고학생후회회 주관		
1	1965년 11/	"죽공으로 돌아오다" 황영석 작	이번	전진호
2	1968년 10/28	"Our Town" Thornton Wilder 작		이태주
3	1969년 10/10	"의자들" E. 이오네스코 작		고봉인
4	1969년 10/28,29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인
5	1970년 5/15	"광부의 생애"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재
6	1970년 10/28,29	"승부의 終末" 사무엘 베케트 작		김왕기
7	1971년 5/26,27,28,31 6/1,2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건널목 삼형" 윤조명 작 "담배재독에 대하여" 안본재출 작 "황금단지" 푸라우터스 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정중희 주경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4,5,11	"자격령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작		차현재
9	1972년 5/25,26,27	"생일파티" H. 핀터 작		한영재
10	1973년 5/21,22,23	"미시시피의 결혼" F.유리안트 작		고봉인
11	1973년 10/25,26,27	"밤" H. 핀터 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 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25,28,30	"정의의 사랑들" A.가워 작		정중희
13	1975년 6/9,10,12,13	"사울타의 산책"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30,31	"비디안과 방화범" Max Frish 작		김기남 안홍순
15	1976년 6/1,2,3	"인터뷰" 장 클로드 반 이엘리 작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26,27,28	"밤" 장 클로드 반 이엘리 작		김영덕
17	1977년 6/15,16,17,18	"EQUUS" 피터셰퍼 작		백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11,12,13	"EQUUS" 피터셰퍼 작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6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 피터셰퍼 작 (대학연극제참가)		인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19	"한강2979" 김영덕 작		장재호 이병국
22	1979년 9/29,10/2	"초분" 오태석 작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5,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염세병 박양권
24	1981년 6/12,13	"누부인의 방문" F.유리안트 작		이종규 황정순
25	1981년 11/12,13,14	"달맞이꽃" 김경중 작		전희석 황정순
26	1982년 5/12,13	"파리할라" A. 가워 작		윤태평 지 숙
27	1982년 10/7,8	"세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 작		전희석 황정순
28	1983년 6/20,21	"미시시피의 결혼" F.유리안트 작		전희석 김영덕
29	1983년 10/7,8	"트러번" JohnBowen 작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25,26	"도가니(The Crucible)" A.Miller 작		이종규 염세병
31	1984년 10/11,12,13	"변전소" John Stollenberg 작		차세훈 이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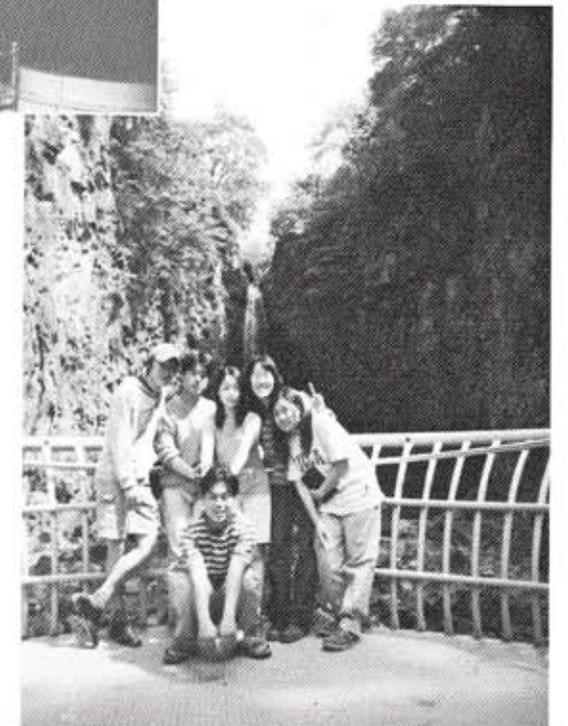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2	1985년 5/9,10,11	"민인공" John Stollenberg 작		김상현 이홍성
33	1985년 11/21,22,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 프레스키 작		허승민 송기범
34	1986년 5/4,5,6	"EQUUS" 피터 셰퍼 작		허성우 허승민
35	1986년 9/11,12,13	"코랄소" E. 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4,5	"한 여름밤의 꿈" by W. Shakespeare 작		권형진 이준석
37	1987년 9/10,11,12	"오해" A. 가워 작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3,4	"세 번은 황게 세 번은 길게" 이여령 작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6,7,8	"안녕? 못내보? by Dario Fo 작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농녀" 윤조명 작		전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 17, 18	"대성당의 살인" by T.S. Elliot 작		오정열 이 번
42	1990년 5/24, 25, 26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 31, 9/1	"한씨연대기" 황석영 작		전승범 이경민
44	1991년 9/5, 6, 7	"생일 파티" H. 핀터 작		남재우 권승혜
45	1991년 9/5, 6, 7	"남개" 이상 작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뭇을 불었다" 김상열 작		양경화 정현용
47	1992년 9/17, 18, 19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일즈맨의 죽음" by A. Miller 작		황영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역시 역시" 김상수 작		소정호 박원상
50	1994년 5/26, 27, 28	"굿 닥터" 닐 사이먼 작		정석용 소정호
51	1994년 9/29, 30,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작		소정호 박원상
52	1995년 5/25, 26, 27	"상자속의 여자" 김윤미 작		현승욱 류성현
53	1995년 11/26, 27, 28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남재우
54	1996년 3/7, 8, 9	"자살" 김현욱 작		한석훈 손미라
55	1996년 9/5, 6, 7	"육양이라는 이름의 전차" 태네시 윌리엄스 TM 작		조태희 이홍일
56	1997년 3/13, 14, 15	"우리 읍내" 손은 요일터 작		신해영 서수경
100주년	1997년 10/8, 9, 16, 17	"대성당의 살인" by T.S. Elliot 작		염세병 정중희
57	1998년 3/18, 19, 20	"살인 놀이" by E.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권내리 이경미
58	1998년 11/26, 27, 28	"물고기의 축제" 유미리 작		윤정환 조태희
59	1999년 3/11, 12, 13	"사랑을 지마도 모두 색명입니다" 이정연 작		김대인 이경원
60	1999년 9/2, 3, 4	"세상 낚기" 이정연 작		이경원
61	2000년 5/4, 5, 6	"이름다운 살인" 장진 작		이원재 이경희
62	2000년 8/31, 9/1, 2	"소니기" 황순원 작		김귀희 박정국
63	2001년 3/29, 30, 31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작		이복재 서정훈
64	2001년 9/5, 7, 8	"배리보다 달이가다" 권희진 작		서정우 김희진
65	2002년 3/13, 14, 1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김영걸 김영진

회	공연 일시	작 품 명	기획	연출	회	공연 일시	작 품 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뚝" W.Aning 작		김홍수	13	1989년 3.23, 24, 25	"흑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A. Canus 작	홍익태	박경근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 작		김득남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ch Strauß 작	이영민 안상준	박혜숙 백로라
3	1977년 3.16, 17, 18	"출발" 윤대성 작	전경호	안홍순	15	1991년 3.7, 8, 9	"노크 노크" 줄스 파이퍼 작	정현용	이병준
4	1981년 3.30, 31	"셋" 이강백 작	한 철	정재호	16	1992년 5.28, 29, 30	"꿈 먹고 물 마시고" 이근상 작	김상겸	양현준
5	1982년 3.24, 25	"ARIA DA CAPO" E.St. V.Millay 작	이영환	오세환	17	1993년 3.11, 12, 13	"메두사" George Kaiser 작	소장호	박원상
6	1983년 4.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이용섭	18	1994년 3.10, 11, 12	"어린 왕자" 생략취베리 작	이명성	홍소환
7	1984년 3.8, 9	"블랙 코메디" 피터 웨퍼 작	전희식	홍여석	19	1995년 3.9, 10, 11	"봄날" 이강백 작	양명호	정소용
8	1985년 7.20	"개인의 소공간" N. Horald 작	차세훈	김인보	20	1996년 5.30, 31, 6.1	"울어라 뱃고동아" 성준기 작	정재훈	김형근
9	1986년 3.17, 18, 19	"ARIA DA CAPO" E.St. V.Millay 작	이영민	하승민	21	1997년 5.29, 30, 31	"로물루스대제" F. 뤼렌마트 작	박정극	정소용
10	1987년 3.12, 13, 14	"인형의 집" 헨리 업선 작	이길영	김정은 위성신	22	1998년 6.5, 6, 7	"결혼/아폴로" 이강백 작	강길호 안영진	류민주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사르트르 작	백윤현	박경근	23	1999년 6.3, 4, 5	"자매""리투어니아" 홍신태	홍신태	권내리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 작	전승범	황금실	24	2000년 11.16, 17, 18	"도덕적 도둑" Dario Fo 작	김영진	강길호

흥커밍 데이 ▶



▲ 세팅하는 날



연천으로 M.T 간 날 ▶

송대극회 여러분의
제 25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 및 선후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실대학교 극예술 연구회 동문 일동-

종합 화장품	BY THE WAY 송실대점 있을꺼다 있어!	송실 노래방	HIP'S	하나로 식당
미향 식당	이태리 시장 음.. 오늘은 스파게티~	COW BOY 시원한 맥주 한잔 어때?	손칼국수 칼국수! 감자탕! 진짜 맛있어~~	시골 집 돈까스! 양도 많구.. 맛있구..^^
로즈 볼 자! 분위기 있게 한잔 할까?	동아마트 싸요 싸~~!!	이데아	상팔사	학우 당구장 서비스로 과자랑 사랑이랑 요구르트.. 밤 먹지 말고 와서 당구만 쳐
이오뎡 너그러운 주인 아저씨! 무지 썩 안주. 그리고 막대 사탕!	미친 토끼	벅스 버니	친 구	피쳐 클럽
블루 힐 분위기 좋지! 사장님 좋지! 다 좋아~~	EBS 노래방	현대 문화사	전공 필수	송실 상회
본 하이머	뉴스틱 노래방	발 해	큐피드	CITY
흥부네	춘천 닭갈비	희망 주립대 막걸리! 동동주! 딱 여기야~~	J 마트 (822-0887) 모든 주문 신속 배달!	혜성 만두
유쾌한 노래방 시간당 무조건 5000원!	한일 철물	노량진 핑크빅	겨 스 여름인데, 시원한 팔빙수 어때?	

진 흥 인 쇄 랜 드